

학점·전공 ‘덜’ 보고, 계열사별 독자 채용

하반기 10대 그룹 채용 본격화
공채는 줄고 수시채용은 늘어

현대차 인사담당자와 오픈카톡
LG 최대 3개사까지 중복지원
롯데 PT·역량 등 5개 면접유형
포스코 상반기부터 합숙면접
한화 전문성·인성·면접 3단계



지난 3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2019 커리어 오디세이 페스티벌' 채용 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하반기 10대 그룹의 신입사원 채용이 본격화된 가운데, 계열사별 경영환경에 따른 차별화된 인재 채용 방식이 확대되고 있다.

학점과 전공을 자격기준에서 제외하는 채용이 대세로 자리잡았고, 계열사간 중복지원 허용 기업도 늘었다. 전반적으로 공채는 축소되고 수시채용 확대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4일 인크루트와 업계에 따르면, LG·SK·포스코·KT·현대자동차그룹 일부 계열사(2일)를 시작으로 GS·CJ(3일), 삼성그룹 전자계열사(4일) 하반기 신입 공채가 이어진다.

계열사 수로 보면 10대 그룹 내 총 100여곳에서 채용이 진행된다.

특히 오픈카톡·합숙면접·AI서류 검토 등 기업별 차별화된 인재 선발 방식이 눈에 띈다.

한화는 지난 2013년 인적성 폐지 이후 면접비중을 강화해 전문성, 인성, 최종면접 등 3단계에 걸친 면접을 진행 중이다.

롯데는 '하루 만에 끝내는 윈스톱 면접'을 통해 지원자 역량을 가린다. 지원

사와 직무에 따라 역량, PT, GD, 인성(임원), 외국어 등 5개 면접유형 중 선별해 적용한다.

포스코는 상반기부터 합숙면접을 도입했다. 1박2일에 걸쳐 조별과제와 개별발표 수행을 통해 직무역량을 평가하는 것으로, 각 직무분야의 선배 우수 직원이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공정심사를 위해 롯데가 첫 채용전형에 도입한 AI 서류 검토의 경우 하반기엔 KT에서도 첫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현대글로벌비스는 모집기간 중 최대 2회에 걸쳐 '인사담당자와 함께 하는 오픈카톡'을 개최해 인사담당자와 자유로운 질의시간을 갖기로 했다.

서류전형에서 학점이나 전공을 불문해 채용하거나 계열사 중복지원이 가능한 경우 등도 눈에 띈다.

LG의 경우 최대 3개사까지 중복지원을 받아왔는데, 올 하반기 채용에서도 이어진다.

롯데도 '최대 2개 회사·직무'에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 복수지원 희망 지원자는 우선순위를 등록해야 하고 지원사가 2곳인 만큼 자기소개서 역시 2개를 작성해야 한다.

하반기 지원자 요건에 학점이 요구되는 곳은 포스코, 한화토탈, 현대엔지니어링 등으로 대다수 10대 그룹은 지원자격 기준에서 학점을 제외했다. 대신 일정 수준 이상 어학성적을 요구하는 계열사가 많아 어학성적이 학점을 대체하는 자격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룹 공채는 축소하고 대신 수시채용을 확대하는 추세도 이어진다.

올해 초 신입 수시채용을 시작한 현대자동차그룹을 시작으로 SK는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공채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SK하이닉스를 포함해 총 9곳이 공채에 나섰지만, 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수요가 있는 계열사는 이미 수시채용으로 선발 중이다.

KT 역시 연구개발, IT, 신사업개발 등 신속한 인력 투입이 필요한 분야에서 수시채용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기업별 석·박사급 연구인력 총원도 활발하다. 핵심산업과 직무에서 연구인력과 산학장학생 모집을 통해 핵심인재를 입도선매하겠다는 것.

LG하우시스는 현재 대졸 신입사원 모집과 동시에 '연구개발 산학장학생'을 모집 중이다. 2020년 8월 이후 학위 취득예정자가 대상으로 박사의 경우는 2022년 2월 졸업예정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SK와 CJ도 각각 '2019 해외 R&D 우수인재 채용' 전형과 '글로벌 탈렌트 전형'을 통해 석·박사 및 해외 우수인재를 모집 중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건대 수의대, 동물마네킹으로 고난도 실습

동물모형, 국내 수의과대에선 처음
건대 반려동물산업 1기 동문이 기부



건국대 수의과대 학생들이 동물 마네킹을 이용해 실습을 하고 있다.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이 2학기부터 실습과 실습이 가능한 동물모형(실습용 동물 마네킹)을 도입한다.

4일 건국대에 따르면, 수의과대학은 최근 건국대 반려동물산업 최고위과정 1기 동문들이 기부한 실습용 동물모형과 시뮬레이션 의료기기 등을 활용해 2학기부터 채혈과 심폐소생술, 청진, 각종 수술까지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이번에 도입된 동물모형은 개와 고양이의 해부학적 구조와 조직 질감, 혈액 순환을 재현해 실감나는 수술 실습이 가능한 미국의 인체·동물모형 기기 제조사 신데버(SynDaver) 모델 등 7종이다. 봉합 수술부터 채혈이나 기도삽관, 폐음 청진 등 다양한 실습을 반복할 수 있다.

특히 혈관과 신경, 근육, 장기구조가 실제 동물과 매우 유사하게 제작돼 동

물 체내 관 삽입, 내시경 검사는 무문장 내 이물질 제거와 같은 복강 수술, 중성화 수술, 장기 적출수술 등의 고난도 수술 실습도 가능하다. 또 20여 개의 심장·흉부질환 등의 진단과 치료 실습도 가능하다.

건국대는 동물모형 도입에 따라 동물 희생 없는 양질의 실습이 가능해지고 더 많은 학생이 반복적인 실습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국대 류영수 수의과대학장은 "가능하면 동물 사체보다 모형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4차혁명시대, 변화·혁신 선도대학 될 것”

임흥재 국민대 총장 취임식

지성과 공동체정신 갖춘 인재육성
특성화된 산학협력 실천과제 제시



임흥재 국민대 신임 총장이 4일 국민대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국민대학교

임흥재 국민대 총장이 4일 오전 국민대 콘서트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총장 업무를 시작했다.

임 총장은 4차 산업혁명 등 변화 시기에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총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민대는 해공 신익희 선생의 '국가를 이롭게 하고 백성을 복되게 한다'는 국리민복(國利民福) 정신과 성곡 김성곤 선생의 지성·자유·실용정신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민족과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는 것이 국

민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또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변화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난관에 직면해있다"면서 "이런 시기에 변화와 혁신을 리드하는 선도대학이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성과 공동체정신을 갖춘 우수 인재 육성 ▲교수의 연구 및 교육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직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풍토 조성 ▲국민대만의 특성화된 산학협력 발전 및 확산 등을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한용수 기자

덕성여대, 대만에 '한국어교육센터' 개소

덕성여자대학교는 최근 대만 성오대 학교와 공동으로 성오대 내에 '성오-덕성 한국어교육센터'를 개소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어교육센터는 성오대 재학생과 자매 고등학교 재학생,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제공한다.

수강생 중 한국 유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덕성여대 진학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양 대학은 앞으로 한국어 강사 파견,

재학생 교류, 한국어 연수생·유학생 유치 등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 대학 교류는 물론 국가 간 교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30일 열린 개소식에서 덕성여대 강수경 총장은 "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울 뿐 아니라 양 국가 학생들이 서로가 살아가는 모습, 지닌 생각, 꿈꾸는 가치에 대해 함께 관심을 갖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삼육대, '장애인 문학론' 국내 첫 개설

정규커리큘럼에 장애인식 개선과목
작년 '장애인 예술의 이해' 첫 도입

삼육대학교 스미스학부대학은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장애인문학론을 다루는 교양과목을 개설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학기 첫 개설된 '문학과 장애'는 3학점짜리 수업으로 장애인문학이론을 이해해 장애인의 삶을 탐색하고, 장애인 포용 인식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업은 15주차 과정으로 ▲장애인문학의 개념부터 ▲장애문인 ▲장애인출판 ▲장애인방송 ▲드라마 속 장애인

등 장애인 문학 전반의 역사와 이슈를 폭넓게 다룬다. 이처럼 장애인문학론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장애인관을 탐색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 포용사회로까지 나아가길 제시한다.

강의는 방귀희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회장이 맡았다. 방 회장은 지난 상반기 장애인문학론 '을 출간하며 교과목 개설을 위한 준비를 했다.

방 회장은 "단발성 교육이 아닌, 대학의 정규 커리큘럼에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교과목이 개설된 것은 국내 최초 사례"라며 "장애인관은 어떻게 형성되



삼육대 전경. /삼육대

고, '장애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등 체계적으로 강의하는 최고 수준의 인문학 강의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현경 기자 son89@